

창립 20주년 맞아 조직개편 단행 체제 정비 품질개선 수출시장 적극 진출 계획



▲ 본사인 김해공장 전경

제과로 친숙해진 기린그룹의 계열사인 기린화학(주)(대표이사 박운중)은 현재 본사인 김해공장과 수원에 제2공장을 두고 있다.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던 수원공장은 바쁘고 부산한 모습으로 기자를 맞았다.

오래돼 보이는 건물이 기린화학의 역사를 대변해 주는 듯 정감있는 모습이었고 현장에서 바쁘게 돌아가는 기계소리는 생생한 생산현장을 실감나게 했다.

올해 창립 20주년으로 더욱 뜻깊은 한해를 맞게 된 기린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기술력에서도 동종업계 우위를 점하고 있다.

1978년 부산에서 태동한 기린화학 주식회사는 식품포장지 및 농업용필름을 생산하며 사업

을 시작했다.

그 후 탁주용기, 아이스크림용기를 생산하며 사업을 확장, 84년 수원공장을 설립하고 식품포장지를 제조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주식회사 기린의 식품포장지 생산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저희 기린화학은 꾸준한 성장을 통해 지난 95년에는 무역의 날 500만불 수출탑을, 97년에는 1,000만불 수출고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95년 3월 본사를 부산에서 김해로 이전하고 새롭게 CPP필름 사업을 시작하며 사업다각화를 꾀하고 있습니다"라는 전기재 과장은 공장내부를 친절히 안내했다.

기린은 최근 다년간의 식품회사 경험을 가진 전문경영인인 박운중 대표이사를 영입하고 도약

의 계기로 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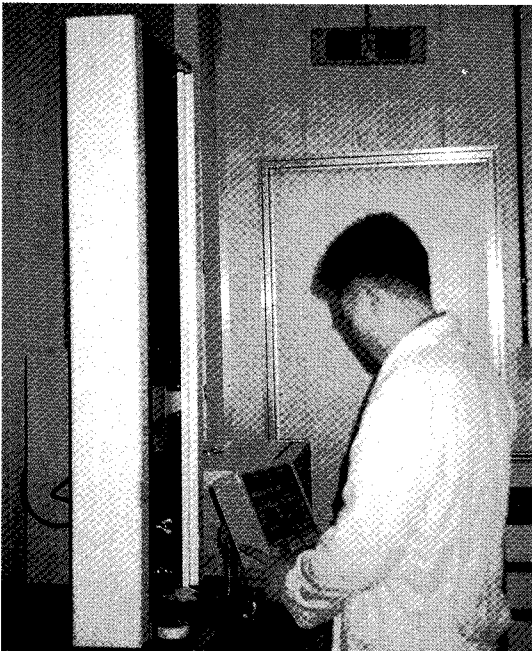
또한 보다 체계적인 형태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초 조직개편을 단행하기도 했다.

경영지원, 영업, 생산파트로 크게 조직을 정립한 기린은 경영지원 파트에 총무, 경리, 구매부서, 영업파트는 국내영업과 국외영업으로, 생산은 수원과 김해공장으로 나누고 R&D부서는 별도로 구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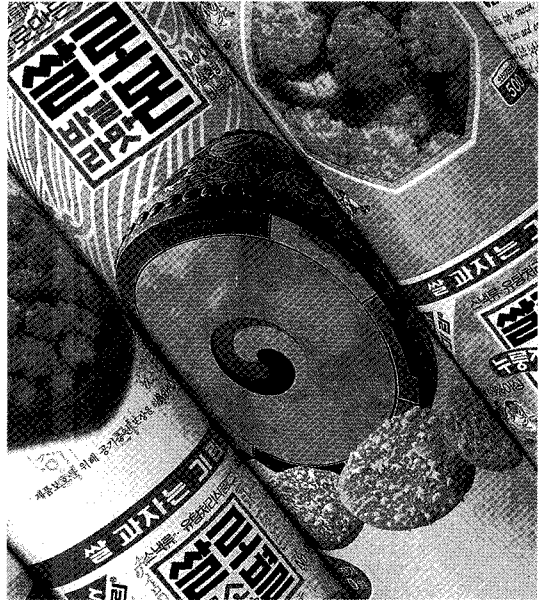
한국 최초로 개발된 3중5층 구성의 공압출 다층필름인 기린의 KCF다층필름은 우수한 Heat seal성, 뛰어난 고속포장적성, 투명성, 광택 및 강도를 자랑하고 있다.

특히 이 제품은 라미네이션이 한 공정으로 완료되며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아 잔류용제의 취기가 없고 로스율이 낮은 것이 장점이다.

최고의 설비가 우수한 품질을 생산한다는 인



▲ 개발실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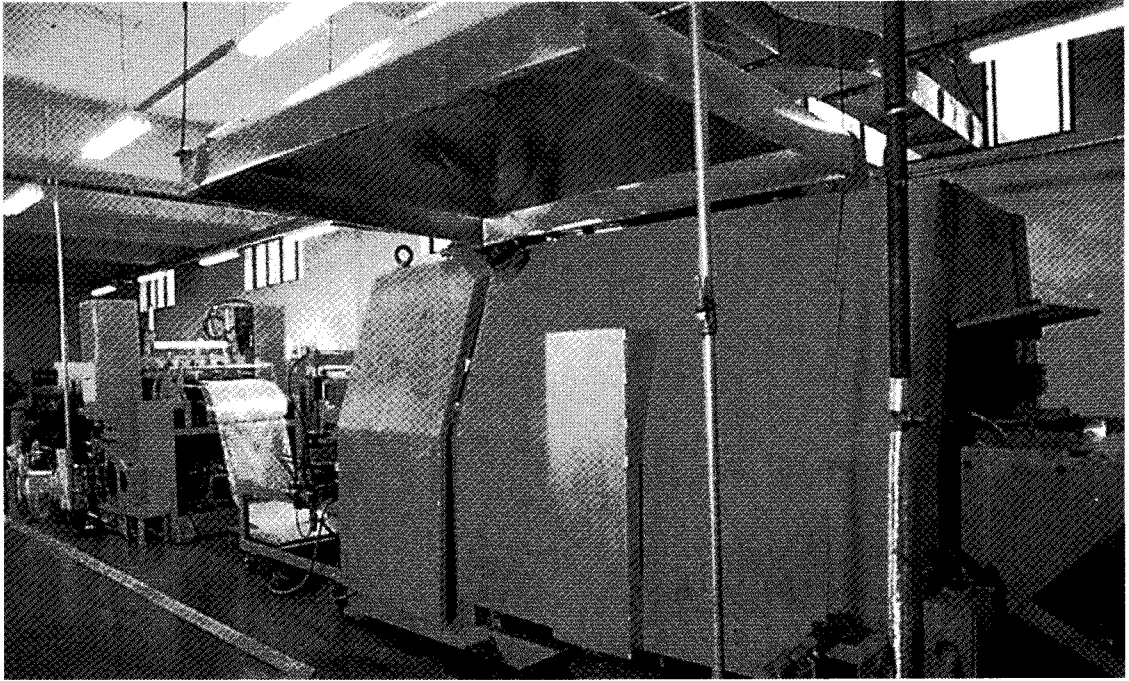
▲ 기린의 대표 품목인 제과 포장지

식아래 최신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린의 그라비아인쇄기는 가로, 세로 사방핀트를 맞추는 최신기종으로 10도인쇄가 가능하며 분당 1250mm 광폭인쇄를 할수있다.

또한 진공증착기는 접착성과 광택이 뛰어나며 특히 증착시 발생되는 트랩라인이 전혀 없고 크랙현상이 발생되지 않으며 안정된 Wet tention을 유지하므로써 후가공적성에 알맞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삼방썰링기는 고속썰링 및 냉각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한층 더 정밀한 제품제작이 가능하며 진공성형 시스템은 폭넓은 소재의 시트생산과 정밀한 금형가공 기술로 차단성용기 등을 생산할 수 있다.

한편 96년 이태리 프란트사로부터 월 250톤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도입하고 본격적으로 CPP필름시장에 뛰어들어 기린은 이 시장의 수요가 현재는 공급과잉 상태이지만 꾸준히 증가할



▲ 수원공장의 진공증착라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필름 생산담당은 “CPP필름 후발업체로 시장에서 경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최고의 품질을 공급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자신하며 내수보다는 수출시장을 타겟으로 적극 진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린은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1996년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현지법인인 KIRIN FLEXIBLE PACKAGING INC.를 설립하기도 했다. 현재 3명의 현지인과 2명의 한국인이 상주하며 시장확보를 위해 활발한 영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아직 규모는 작지만 제품의 질 안정화에 힘쓰고 있는 개발실에서는 제품의 한치 오차도 줄이기 위해 각종 실험설비를 확보하여 영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기린화학(주)은 대지 6,600평, 건평 3,700평으로 180명의 종업원이 지난 해 240억원의 매출을 실현했다.

현장에서 만난 직원들은 바쁜 일정 속에서 한 웃음을 잃지 않고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사원의 주택문제를 해결해 주는 등 기린의 복지상태에 만족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는 그들은 어려운 시기에 더욱 최선을 다해 회사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사회 전반적으로 기업이 어려워 사기가 다소 실추되는 근로자들이 업체에서 종종 눈에 띄지만 새로운 경영인과 함께 긍정적인 사고로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기린 근로자들의 의지는 타 업체 포장인들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

이선하 기자